

대학생의 부모애착형성과 SNS중독경향성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 제주지역 중심으로

고보숙, 박정환*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The Mediating Effect of permissiveness of Ego Resiliency between University School Students' Parental Attachmant and SNS Addiction Tendancy: Surveying residing in Jeju

Bo-Suk Ko, Jung-Hwan Park*

Department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애착형성이 SNS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의 대학생 3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 한 뒤, 응답결과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처리 분석을 위하여 Amos를 이용한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대학생의 부모와의 애착형성과 SNS중독경향성간에 유의한 부적상관이 나타났으며 자아탄력성과 SNS중독경향성에서도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대학생의 부모애착형성과 자아탄력성간에는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나 부모애착형성과 자아탄력성은 SNS중독경향성을 낮추는 유의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대학생의 부모애착형성과 SNS중독경향성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한 결과, 부모애착형성과 SNS중독경향성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연구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탄력성이 앞으로 SNS중독경향성에 대한 문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실제적인 의의가 있다고 본다. 즉, 대학생의 SNS의 과도한 사용은 중독경향성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자아탄력성을 강화시킴으로써 건전한 SNS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and ego resiliency in the tendency toward social networking site (SNS) addiction in college students. For this purpose, 382 college students in the Jeju area were surveyed and their responses analyzed.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structural equations were implemented using SPSS Statistics version 18.0.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there is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attachment formation and SNS intoxication in college students, and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ego resiliency and SNS addiction. Also, there i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formation of parental attachment and ego resiliency in college students, indicating that parental attachment and ego resiliency are significant factors in lowering SNS addiction. Second, in order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ego resilien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rmation of parental attachment and SNS addiction in college students, a research model and a competition model were established and verified. As a result,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 attachment and SNS addiction was mediated completely, and the research model is more appropriat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go resiliency is of practical significance in seeking ways to improve the problem of SNS addiction in the future. In other words, overuse of SNSs by university students can lead to addiction, but strengthening ego resiliency enables sound SNS use.

Keywords : Ego Resiliency, Parental Attachmant, SNS, SNS Addiction Tendancy, University student

*Corresponding Author : Jung-Hwan Park(Jeju Univ.)

Tel: +82-64-754-2167 email: edu114@jejunu.ac.kr

Received February 20, 2018

Accepted May 4, 2018

Revised (1st April 9, 2018, 2nd May 3, 2018)

Published May 31, 2018

1. 서론

최근 인터넷통신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하여 디지털 인맥을 구성하는 SNS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1]에서는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인터넷상에서 친구, 동료 등 지인과의 인간관계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인맥을 형성함으로써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SNS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빠르고 간편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SNS상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으며 친구관계 형성에 있어 대인관계를 넓힐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SNS 이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SNS 이용 형태에 따른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1]에서 실시한 ‘모바일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의하면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의 80.9%가 모바일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청[2]에서 SNS이용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대학생은 (97%), 고등학생(95.3%), 중학생(94.6%)의 순으로 이중 대학생의 SNS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위의 조사결과를 통해 최다희[3]의 연구결과에서처럼 대학생들이 대인관계 형성을 위해 온라인 소통의 매개체로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대학생은 친밀한 대인관계를 발달과정으로 두고 친구들과의 우정이나 반응 등에 민감하며 사회적 관계를 중요시 여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4]. 반면에 SNS의 과다사용은 SNS중독, 대화단절, 사생활 침해, 시력저하, 수면부족 등 역기능적 측면도 가져왔다[5]. 특히 사이버공간은 깊이 있는 인간관계 형성을 어렵게 하고, 사회관계에서 사회결속을 약화시키는 문제점이 있다[6]. 이는 사생활침해, 무분별한 정보 확산, 대화단절, SNS의 중독문제를 야기 시킨다. 또한 이상호[7]는 SNS 중독경향성은 모바일 환경 특성상 집단속에서 내가 소외되지 않도록 상대방과의 관계와 활동에 의해 집착 및 금단증상, 과잉소통 및 몰입, 과도한 시간투자를 하는 행위로 일상생활에 어려움과 행동제어를 할 수 없는 상태[8]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중독은 애착장애의 한 유형이다. Flores[9]에 의하면 애착의 형성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개인은 애착의 부재로부터 오는 결핍을 보상하려는 행위로서 대체물에 대한 강박적 행동을 하게 된다. 최세경 외(2012)[10]에 따

르면 부모애착에서 친밀감은 중요한 정서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 미디어를 사용하거나 심리적 의존성이 강한 특정 미디어를 이용할 때 대인관계에서의 유대관계와 비슷한 애착을 느낀다고 하였다. 대학생들의 SNS중독에 있어서도 다양한 원인이 있으나 그 중 하나의 요인으로 부모와의 애착을 들 수 있다. Bowlby[11]의 애착이론은 인간의 성격발달과 정신건강의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하는 것으로 아동기에 주 양육자와의 안정된 정서적 유대의 질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즉, 아동기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관계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표상을 발달시킬 뿐 아니라 상호의존적이고 만족스러운 대인관계의 형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Bowlby[12]는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관계 경험은 불안 또는 회피적인 대인관계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며 이러한 역기능적인 대인관계 패턴을 불안, 우울, 약물남용, 중독 등과 같은 정신병리의 근원이 된다고 보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13]이 SNS 이용자를 조사한 결과 그 중 가장 많은 비율(90.2%)을 차지하는 연령층이 20대로 나타났다. 한국정보화진흥원[14]에서 실시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실태 조사에서는 성인 연령대 중 20대가 고위험군(3.9%), 잠재위험군(2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위의 조사를 통해 대학생이 그만큼 SNS중독에 있어 취약한 계층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대학생은 아동이나 청소년에 비해 SNS접근성이 더 자유롭고 성인층에 비해 정보에 민감하고 정보 및 기술 습득이 빠르다[15]는 특성을 갖고 있다.

Erikson[16]은 대학생 시기는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중 청년후기에 속하며 부모로부터 완전한 독립된 성인이 아닌 과도기에 있으며 변화와 적응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하였다. 특히 대학생 시기는 인생에서 젊은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환경은 대학생들에게는 무절제, 무질서의 환경을 만들기도 한다. 박순영[17]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진입한 20대 대학생은 취업 및 학업경쟁, 부모로부터 심리적, 경제적 독립과 관련된 부담과 스트레스를 회피하고자 인터넷 사용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된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스트레스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탄력성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다.

Block & Block[18]는 자아탄력성은 변화와 상황적 요구들, 특히 부정적인 상황에서 유연하게 반응하고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적응해 나가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자아탄력성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태도는 적응 상황에 대처하는 기술을 갖고 있으므로 탄력수준이 높을수록 중독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에 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19-21].

최은미[22]에 의하면 자아탄력성은 중독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긍정적인 측면을 나타낸다. 또한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관련하여 자아탄력성이 높고 애착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적응적이며, 애착과 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은 매개적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23]에서와 같이 대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완충시켜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자아탄력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애착형성과 SNS중독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검증된다면 SNS중독경향성을 보이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부모애착형성, SNS중독경향성, 자아탄력성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대학생의 부모애착형성이 SNS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을 Fig 1과 같이, 경쟁모형을 Fig 2와 같이 설정하여 비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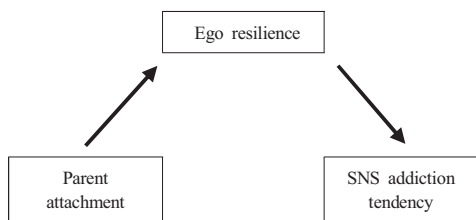


Fig. 1. A Study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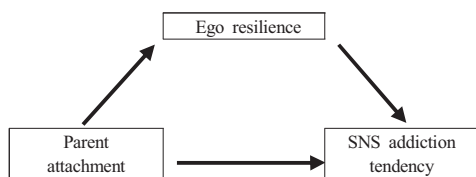


Fig. 2. Competition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대학생의 부모와의 애착형성이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제주지역의 3개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42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방법은 교수님께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해드리고 학교 강의 시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교수님께서 직접 조사하고 2주 후 방문하여 회수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이 중 무응답과 불성실하게 응답했다고 판단되는 38명의 자료를 제외한 후, 382명(남: 150명, 여: 232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2.2 측정도구

2.2.1 부모애착

부모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1987년 Armsden과 Greenberg가 청소년들의 부, 모, 또래 애착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것을 옥정[24]이 번안하여 수정·보완한 부, 모 및 또래 애착척도 개정판에서 또래 애착을 제외한 부, 모 애착만을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옥정의 연구에서는 신뢰도Cronbach's α 값이 .95, 본 연구에서는 .74이다.

2.2.2 SNS중독경향성 측정도구

SNS중독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조성현과 서경현[25]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SNS중독경향성의 하위요인으로는 SNS 집착 및 금단증상, SNS 과잉소통과 몰입,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투자 등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성현과 서경현[25]이 보고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94, 본 연구는 .80이다.

2.2.3 자아탄력성 측정도구

이은석, 김성희[26]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하여 타당화 검증한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기존의 대학생들에게 해당하는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27-30]들이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기존의 측정 도구 분석을 통해서 추출한 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으로는 긍정적사고, 정서조절, 목표지향성, 의사소통방식의 네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있

다. 이 검사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83, 본 연구에서는 .76이다.

2.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모델의 추정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SPSS Statistics 18.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대학생의 부모애착형성, SNS중독경향성, 자아탄력성간의 관계구조에 대한 이론적 모형이 수집된 자료와 합치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AMOS 18.0의 다변량 정규분포성(multivariate normality) 검증 절차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모델 적합도는 최대우도 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 ML) 절차를 적용하여 적합도 지수인 χ^2 값(=CMIN)과 RMSEA(Root Mean Square Error Index), NFI(Normed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를 통해 평가하였다.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표준오차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Shrout와 Bolger[31]가 제안한 부트스트랩 절차에 따라 간접 매개효과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부모애착형성과 SNS중독경향

성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와 관측변수간 상관관계는 Table 1과 같다. 대학생의 부모와의 애착형성과 SNS중독경향성 및 자아탄력성 사이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별 하위요인들에 있어서 부모애착은 신뢰성, 의사소통, 소외감, SNS중독경향성은 SNS집착 및 금단증상, SNS 과잉소통과 몰입,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투자, 자아탄력성은 긍정적 사고, 정서조절, 목표지향성, 의사소통방식이다.

Table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관측변수들은 $P < 0.1$ 유의수준에서 부적 및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SNS중독경향성과 다른 변인들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SNS중독경향성과 전체 부모애착,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대체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상관관계($r = -.15, r = -.26$)가 나타났으며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간은 정적상관($r = .54$)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의 부모애착형성과 자아탄력성간에는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나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은 SNS중독경향성을 낮추는 유의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3.2 자아탄력성 매개모형

3.2.1 측정모형 검증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측정모형의 RMSEA 값은 .86으로 보통 수준의 적합도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NFI, RFI,

Table 1. Correlation, and an average, standard deviation, skewness, kurtosis result (N=382)

	F1	F1-1	F1-2	F1-3	F2	F2-1	F2-2	F2-3	F3	F3-1	F3-2	F3-3	F3-4
F1	1												
F1-1	.88**	1											
F1-2	.92**	.76**	1										
F1-3	.90**	.67**	.72**	1									
F2	-.15**	-.20**	-.13**	-.08	1								
F2-1	-.12*	-.17**	-.09	-.05	.91**	1							
F2-2	-.06	-.10*	-.05	-.01	.89**	.77**	1						
F2-3	-.22**	-.25**	-.21*	-.15**	.91**	.74**	.69**	1					
F3	-.26**	-.31**	-.23**	-.19**	.54**	.50**	.45**	.52**	1				
F3-1	-.17**	-.28**	-.15**	-.07	.52**	.50**	.42**	.49**	.70**	1			
F3-2	-.36**	-.30**	-.35**	-.33**	.36**	.31**	.24**	.41**	.65**	.33**	1		
F3-3	-.12*	-.16**	-.09	-.10	.30**	.25**	.32**	.24**	.71**	.41**	.24**	1	
F3-4	-.05	-.14**	-.02	.00	.38**	.39**	.32**	.32**	.72**	.53**	.19**	.40**	1
M	2.03	1.74	2.18	2.18	3.49	3.67	3.24	3.55	3.44	3.59	3.24	3.21	3.72
SD	.54	.52	.63	.66	.70	.72	.72	.88	.48	.63	.76	.66	.63
W	.20	.47	.01	.22	-.15	-.21	.12	-.36	.08	-.20	-.11	-.05	-.09
K	.14	-.23	-.38	.58	-.37	-.16	-.15	-.37	.17	-.36	-.25	.22	-.07

** $p < .01$, * $p < .05$

F1: SNS addiction tendency, F1-1: SNS obsession and withdrawal symptoms, F1-2: SNS excess communication and commitment, F1-3: Excessive time investment for SNS

F2: Parent attachment, F2-1: Confidence, F2-2: Communication, F2-3: Alienation

F3: Ego resilience, F3-1: Positive thinking, F3-2: Emotion regulation, F3-3: Goal orientation, F3-4: Communication method

IFI, TLI, CFI를 함께 살펴 보았다. 대학생의 부모와의 애착형성과 SNS중독경향성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 매개모형을 검증한 결과 연구모형(경쟁모형)의 χ^2 의 값은 117.77(117.50)이었으며 df ; 31(30), p : .000(.000), NFI : .94(.94), RFI : .91(.91), IFI : .95(.95), TLI : .93(.93), CFI : .95(.95)로 모든 적합도 지수가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하였다.

Table 2. Model Fit Summary

A Study on Model (completely mediated model)	χ^2	df	p	NFI	RFI	IFI	TLI	CFI	RMSEA
Competition model (Partial mediated model)	117.77	31	.000	.94	.91	.95	.93	.95	.086
A Study on Model: RMR: .035, GFI: .942, AGFI: .896, PGFI: .531	117.50	30	.000	.94	.91	.95	.93	.95	.087
Competition model: RMR: .035, GFI: .942, AGFI: .893, PGFI: .514									

3.2.2 대학생의 부모애착형성과 SNS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경로모형(연구모형과 경쟁모형)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부모애착형성이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어떤 경로로 SNS중독경향성을 설명해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인들 간의 관계의 경로를 살펴 보았다. 변인간의 경로는 Table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001수준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Table 3. Unstandardized and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The variables	Unstandardized Estimate	S.E.	C.R.	Standardized Estimate	
A Study on Model (completely mediated model)	Parent attachment -> Ego resilience	.475	.043	10.960	.653***
	Ego resilience -> SNS addiction tendency	-.253	.063	-4.029	-.248***
Competition model (Partial mediated model)	Parent attachment -> Ego resilience	.476	.043	10.978	.655***
	Parent attachment -> SNS Addiction Trend	.032	.062	.522	.044***
	Ego resilience -> SNS addiction tendency	-.289	.094	-3.089	-.283***

3.2.3 측정변인들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매개모형에서 예측변인이 결과변인을 설명하는 효과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예측변인에서 결과변인으로 가는 경로의 직접효과와 예측변인이 매개변인을 거쳐 결과변인으로 가는 간접효과, 이를 매개효과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 검증을 알아보기 위해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알아보았고 그 결과는 Table 4 에 제시되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애착형성이 자아탄력성으로 가는 경로의 총효과는 .653으로, 부모애착형성이 자아탄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탄력성에서 SNS중독경향성으로 가는 경로의 총효과는 -.248로 자아탄력성 역시 부모애착보다는 수치가 작지만 SNS중독경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탄력성의 매개모형에서는 부모애착에 대한 SNS중독경향성의 간접효과가 -.162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애착이 SNS중독경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모와의 애착형성이 SNS중독경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변인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를 뒷받침 해준다.

Table 4. tandardized Total Effects, Standardized Direct Effects, Standardized Indirect Effects

Categories	total effect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Parent attachment -> Ego resilience	.653***	.653***	0
Parent attachment -> SNS addiction tendency	-.162**	0	-.162**
Ego resilience -> SNS addiction tendency	-.248***	-.248***	0

3.2.4 연구모형의 완전매개모형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두 모형 중 어느 모형이 더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χ^2 차이검증 결과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χ^2 차이값이 0.27이며 자유도의 차이는 1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다 간명한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연구모형을 본 연구의 모형으로 채택하고 Fig 3 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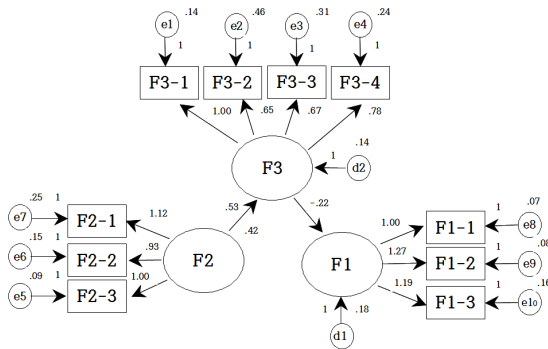


Fig. 3. Structural model

F1: SNS addiction tendency, F1-1: SNS obsession and withdrawal symptoms, F1-2: SNS excess communication and commitment, F1-3: Excessive time investment for SNS
 F2: Parent attachment, F2-1: Confidence, F2-2: Communication, F2-3: Alienation
 F3: Ego resilience, F3-1: Positive thinking, F3-2: Emotion regulation, F3-3: Goal orientation, F3-4: Communication method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애착형성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제주도에 위치한 3개 대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대학생 382명(남: 150명, 여: 232명)의 설문을 분석하였고, 설문 척도는 부모애착 척도, SNS 중독경향성, 척도, 자아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방정식을 통한 모형검증 이전에 독립 변인들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애착과 SNS 중독경향성 간에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에 쓰인 SNS 중독경향성, SNS 집착 및 금단증상, 과잉소통과 몰입,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투자라는 부적인 개념을 측정하였으므로 이것은 부모와의 애착이 잘 형성되었을수록 SNS 중독경향성이 감소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발달초기 주요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애착 유형이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지속된다고 보았던 Ainsworth [32]와 애착관계에 대한 내적 표상이 일생을 통해 지속된다고 주장한 Bowlby [33]의 전통적인 애착이론을 뒷받침한다.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의 관계에서도 정적인 상관을 보여 부모와 애착이 잘 형성되면 자아탄력성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부모와 안정애착을 형성한 성인이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이전의 연구 결

과 [34-37] (제인용)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부모애착형성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완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부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이를 비교함으로써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모애착에서 SNS 중독경향성으로 가는 직접경로는 그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고 부모애착에서 자아탄력성, 그리고 자아탄력성에서 SNS 중독경향성으로 가는 간접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부모애착이 SNS 중독경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고, 특히 부모애착에서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부모와의 애착이 잘 형성되었을수록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아지고, 높은 수준의 자아탄력성은 SNS 중독경향성을 낮추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SNS 중독경향성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 [38]와 스마트폰 애착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중독경향성이 낮다고 주장한 구세희 [39]의 주장과 일치한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이 높더라도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덜 받는다는 신철철 [40]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탄력성이 앞으로 SNS 중독경향성에 대한 문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실제적인 의의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대학생의 SNS의 과도한 사용은 중독경향성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자아탄력성을 강화시킴으로써 건전한 SNS 사용을 가능케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 및 대상을 확장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생들의 SNS 중독경향성은 남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중독경향성의 유형도 성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남녀 성별에 따른 SNS 중독 유형에 따른 차이에 대한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남녀 성별에 따른 SNS 중독경향성의 차이 등 새로운 변인에 대한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References

- [1]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Internet Usage Survey, 2015.
- [2]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5 Mobile Internet Users Survey, 2015.
- [3] Choi Da He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network of college students and the addiction tendency of SN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Science. Master's thesis, 2016
- [4] Park Mi-hyang,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5 factors, self - esteem and SNS addiction tendency in college students. Kyungsu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4.
- [5] Woo gong Sun, Use of mobile social network services and study of addiction. Dongguk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1.
- [6] Hong Shin-young, The Effects of SNS Usage Characteristics and Self - Identity on College Students' SNS Addiction Tendency. Thesis for Master 's Degree, Myongji University, 2015.
- [7] Lee Sang-ho, A Study on Policy Implications of Social Media Users' Poisoning; Focusing on the Korean SNS Addiction Index (KSAI) proposal. Digital Policy Research, 11 (1), 255-265, 2013.
- [8] Seo Kyung-hyun, Exploring SNS addiction tendency related factors; Focusing on inner narcissism, self - presentation motive and alienation.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ealth, 18 (1), 239-250, 2013.
- [9] Flores, P. J, Addiction as an attachment disorder. MD: Rowman & Littlefield, 2004.
- [10] Choi Seok-Kyung, Kwak Kyoo Tae, Lee Bong-gyu, Communication orientation and mobile SNS attachment, A Study on the Effects of SNS Interaction and Post - use Interpersonal Relations. Journal of Cyber Communication, Vol. 29, No. 1, 159 ~ 200, 2012.
- [11] Bowlby, J, Attachment and Loss: Attachment(Vol. 1).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69
- [12] Bowlby, J, Attachment and loss. Vol.2. Separation. NewYork: BasisBooks, 1973.
- [13] Korea Internet Promotion Agency. Survey on Mobile Internet in 2013.
- [14]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Internet Usage Survey in 2015
- [15] Shin Mi-kyung, Verification of Structural Model for SNS Addiction tendency of University Students. University of Incheon, doctoral dissertation, 2015
- [16] Erikson, E,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1968.
- [17] Park Soon-young,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Stress and Self - Resilience on Internet Addiction. Hannam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3
- [18] Block, J., & Block, J. H.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es(EDS.), Mi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13, 39-101, 1980.
- [19] Kim Young-kyung, The Relationship between A dolescents' Stress, Internet Addiction and Gambling Behavior: Verification of Moderating Effect of Self - Efficacy and Ego - resilience. Korean Youth Research, Vol. 24, No. 1, 127 ~ 156, 2013
- [20] Kim Young Min · Lim Young Sik, Democratic parenting style, ego - resilience, mobile phone dependence and self - directed learning ability. Korean Youth Research, Vol. 23, No. 2, 273 ~ 299, 2012.
- [21] Zhu Suk Jing, The mediating effects of resilience on adolescents' perceived academic and parental stress and Internet addiction. Studies in Youth Studies, Vol. 18, No. 11, 61-83, 2011.
- [22] Choi Eun-mi, Comparison of Effects of Motivation Strengthening Focus Group and Cognitive B ehavior Group Counseling for Smartphone Addi ction College Students. Jeonju University. Doctoral thesis, 2015.
- [23] Yoo Sung Kyung, Choi Byeong Yun, and Hong Sehe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home risk factors and adaptation, Verification of mediating effects of power, attachment, existential spirituality.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1 8 (1), 393-408, 2004.
- [24] Ok Jeong,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tability and Depression in Adolescents: Focused on Mediated Effects of Perceived Competence.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s thesis, 1998.
- [25] Sung Hyun, Seo Kyung-hyun, Exploring Factors Related to SNS Addiction Tendency: Focusing on Internal Narcissism, Self Presentation Motivation, and Alienation.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ealth, 18 (1), 239-250, 2013.
- [26] Lee, Eun Suk and Kim Sung He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college student ego - resilience scale. Counseling Research, 13 (6). 3077-3094, 2012.
- [27] Park Hyun - Jin, Perception Stress Coping and Depression Following Self - Elasticity,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1997.
- [28] Choi, Paol, Effects of Adaptive Flexibility Beliefs of College Students on Adaptation and Stress Control in College Life, Master Thesis, Yonsei University, 2006.
- [29] Jung Eun-ok, The validation of psychological elasticity measure,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2006.
- [30] An do Hee, Kim Jiah, Characteristics of college students' adaptive flexibility: Focusing on coping strategy, social support, competence and academic performance. 21 (1), 47-67, Educational Psychology Research, 2007.
- [31] Shrout, P. E., Bolger, N.,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vol. 7, no. 4, pp. 422-445, 2002.
- [32]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ters, E., & Wall, S,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 sdale, NJ: Erlbaum, 1978.
- [33] Bowlby, J, A secure base. New York: Basic Books, 1988.
- [34] Kobak, R., & Sceery, A.,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for self and others. Chid development, 59, 135-146, 1988.

- [35] Shaver, P. R., & Brennan, K. A. (1992). Attachment styles and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Their connections with each other and with romantic relationship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490-505.
- [37] Huh Jung Sun, Hyun Myung Ho, Family attachment, attribution style, ego resilience and expressive emotion (Expressed Emotion).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4 (1), 37-51, 2005.
- [38] Im Jae-Sik,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nd ego-resilience on the SNS addiction tendency of pre-service infant teachers, *Korea Internet Communications Preservation Association*, 17 (1) 191-197, 2017.
- [39] Koo, See-hee, A Study on Attachment Formation and Addiction Tendency of Smartphone: Verification of Moder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Thesis* 2014.
- [40] Shin, Sung-cheol, Modification of adaptive flexibility control effec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daptation to school life and aggression on smartphone addiction, *Child Education*, 23 (1), 199-214, 2014.

박 정 환(Jung-Hwan Park)

[종신회원]



- 1992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문학사)
- 1994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문학석사)
- 2001년 2월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04년 9월 ~ 현재 :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교육방법, 교육공학, ICT, Smart-Education

고 보 속(Bo-Suk Ko)

[정회원]



- 2006년 8월 : 탐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교육학석사)
- 2016년 3월 ~ 현재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박사 과정 중
- 2010년 3월 ~ 현재 : 제주관광대학교 교부속유치원 원감
- 2015년 3월 ~ 현재 : 유치원 컨설팅지원단

• 2016년 3월 ~ 현재 : 제주관광대학교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교육방법, 교육공학, 교육학, 유아교육